

제 161 호

예수 성탄 대축일

1975. 12. 25.

# 숲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법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35098)

## 성탄절전례

### 2. 성탄 새벽 미사

가톨릭 기도서 P 229

#### (1) 개회식

□**입당송** 큰 빛이 오는 우리 위에 비치리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셨도다. 그 이를 묘하신 분, 하느님, 평화의 임금, 영원한 아버지라 하리니, 그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라.

#### (2) 말씀의 전례

□**제1독서** (이사야 62: 11-12, 경향잡지 p 87)  
보라 네 구세주 오신다.

□**창세기** ③ 우리 위해 주님이 탄생하셨으니 우리 위해 오늘 광명이 비치리라.

주께서 왕하시니, 땅이여 춤을 추라. 하고 많은 섬들도 기뻐 워하라. 하늘은 당신 정의를 두루 알리고, 만백성은 그 영광을 우러러 보도다. ③

□**제2독서** (디도 3: 4-7, 성서 p 492)

당신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늘 높은 곳에는 천주께 영광 땅에서는 마음이 착한 이에게 평화. 알렐루야.

□**복음** (루카 2: 15-20, 성서 p 127)

목동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보았다.

#### □신자들의 기도

#### (3) 성찬의 전례

□**봉헌**

□**성찬식**

□**영성체술** 시온의 딸아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아 환호하라. 보라, 구세주 거룩한 입금님이 오시도다.

### 3. 성탄 낮 미사

가톨릭 기도서 P 231

#### (1) 개회식

□**입당송** 우리를 위하여 아기가 태어나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이 주어졌으니, 그는 주권을 어깨에 메시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의견의 사자라 일컬으리라.

#### (2) 말씀의 전례

□**제1독서** (이사야 52: 7-10, 경향잡지 p 87)

은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을 뵈으리라.

□**창세기** ③ 땅 끝마다 우리 주의 구원하심을 모두가 우러러 보았도다.  
새로운 노래를 주께 불러 달려 들어라. 묘한 일을 당신이 하시었도다. 당신의 오른 손이, 거룩하신 그 팔이 당신의 승리를 마련하였도다. ③

□**제2독서** 히브리 1: 1-6, 성서 p 496)

하느님은 성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도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거룩한 날이 우리를 위해 밝았으니, 만백성들이 와서 주님께 예배드리세. 오늘 큰 빛이 세상에 내리셨도다. 알렐루야.

□**복음** (요한 1: 1-18, 성서 p 202)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도다.

#### □신자들의 기도

#### (3) 성찬의 전례

□**봉헌**

□**영성체술**

□**영성체술** 땅 끝마다 우리 주의 구원하심을 모두가 우러러 보았도다.

### 1. 성탄 밤 미사 <25일 자정>

가톨릭 기도서 P 227

#### (1) 개회식

□**입당송** 나에게 이르시는 주님의 말씀, “너는 내 아들, 오늘 너를 낳았노라”

#### (2) 말씀의 전례

□**제1독서** (이사야 9: 24, 경향잡지 p 86)

우리를 위하여 아들이 주어졌도다.

□**창세기** ③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오늘 탄생하셨도다 새로운 노래를 주께 불러드리라. 온 누리여, 야훼께 노래 불러라. 주께 노래를 불러드리라, 그 이름 찬미하라. ③

□**제2독서** (디도 2: 11-14, 성서 p 493)

하느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도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노니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오늘 탄생하셨도다, 알렐루야.

□**복음** (루카 2: 1-14, 성서 p 126)

너희를 위하여 오늘 구세주 탄생하셨다.

#### □신자들의 기도 (공통)

1. 성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람이 되신 당신의 참뜻을 온 인류가 알아들어 성탄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게 하소서. ③주여...

2. 가난하게 태어나신 그리스도여, 우리는 아직도 가난의 참뜻을 알지도 못하고, 가난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줄도 모르웁니다.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시어 가난한 형제와 사랑을 함께 나눌 줄 알게 하소서. ③

3. 억눌린 자의 위로이신 그리스도여, 이 즐거움 성탄절에도, 당신의 전리와 정의를 주장하다가 아직도 고동중에 신음하는 형제들이 많이 있나이다. 우리는 약하고 비겁하여 그들과 동참을 못했으나 마음으로부터도 그들과 함께 있게 하소서. ③

4. 평화의 주 그리스도여, 당신의 평화로 우리 모두가 형제애를 나눌 줄 알게 하소서.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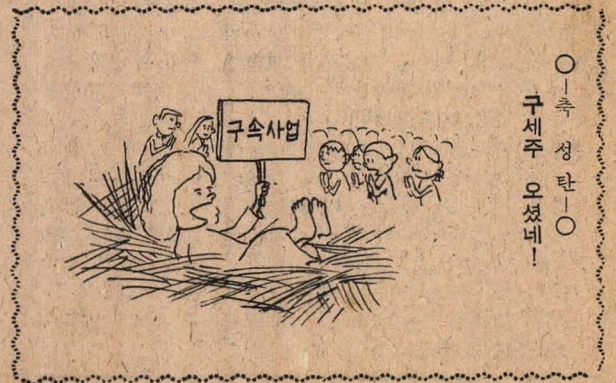
#### (3) 성찬의 전례

□**봉헌**

□**성찬식**

□**영성체술** 말씀이 사람이 되시니,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노라.

## 숲정이 산책



□1975년 성탄 메시지□

# 사랑의 공동체로써 강생의 신비를 새롭게 하자

천주교 전주교구장 김 재 덕 주교

성탄절 8일 동안에 우리는 자주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 감탄하올 교환이여!  
 인류를 창조하신자  
 영혼과 육신을 취하시고,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시니  
 우리에게 그의 천주성을 주시도다!”

## 기쁜 성탄을 맞이한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베를레헴 동굴을 찾아 구유에 누워계신 아기 예수를 경배합시다.

축복받은 이 밤에 태어난 천상아기는 나자렛의 한 부인의 아들, 그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다윗로, 다윗에서 요세배 그의 아내 마리아에게로 이어질 뿐, 목수의 아들이 외에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태오 13, 55)

그러나 갓난 이 아기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요한 1, 14) 하느님의 아들 성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에게 이르시는 주님의 말씀 「너는 내 아들, 오늘 너를 낳았노라」” (시 2, 1)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쁨이요, 우리가 지내는 **축제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서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에게는 당신의 천주성을 주시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강생의 신비**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를 감탄하여 “오 지극한 하느님의 사랑이여! 우리를 하느님으로 만들기 위하여 당신 친히 사람이 되시다니!” 하고 외쳤습니다.

이 밤은 실로 하느님과 사람이 천주성과 인성을 서로 주고 받는 신비의 밤이요, 사랑에 넘친 거룩한 밤입니다. 이렇게 온 누리는 새로와지고, 하느님의 백성은 형성되며, 그리스도의 왕국은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강생하시기 전에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내려다 보실 때 비취한 인간들만이 당신을 떠나 흩어져 살고 있음을 보셨지만, 이제는 세상을 내려다 보실 때 새로운 아담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를 따르고 그를 닮아가는 온 인류를 당신의 백성으로 흐뭇하게 미소지 으시며 바라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서로 사랑하며 형제적인 우호관계를 맺고,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와 상호 부조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러한 **인류의 소망**을 이뤄주시기 위하여 성자를 세상에 보내 주셨고, 성자께서는 인류의 머리로서 하느님의 백성을 형성하며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 강생의 신비를 계속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만민을 하나로 묶어 하느님의 백성을 형성하며, 그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각 개인을 아무런 연결도 없이 개별적으로 거룩하게 하거나 구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들을 한 백성으로 모아서 당신을 진실히 알아 모시며 충실히 섬기도록 하시었기 때문입니다. (교회헌장 9)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그 영(靈)에 의해 **생동**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생동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착한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 개개인의 개인 성화인 동시에, 우리가 모두 하나의 공동체로써 함께 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도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을 알기는 하지만 실천하는 데는 게을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우리의 신앙이 지나치게 내세(來世)에 대한 것만을 강조하여 온 나머지 현세의 삶을 중요시 하지 않은 데서 온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장차 완성될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내세에 대한 신앙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보아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그리스도안에서 시작되어 이 세상에서 종말을 향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여 **사랑의 은총**이 여러분과 온 겨레위에 풍성히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의 은총이, 특히 **형제적 사랑**이 오늘처럼 소망스러웠던 때도 일찌기 없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특징**은 **형제적 사랑의 유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 가운데는 가끔 개인주의적인 신실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극히 열심하고 흠잡을 데 없는 착한 신자로 보이지만, 함께 일할 때에는 단결심이 없고 공동체 의식이 없어 결국은 사랑이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세상에 봉사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교회의 멤버들이 한데 뭉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굳게 일치 단결하여 사회에 봉사할 때 주님의 영광은 더욱 크게 현양될 것입니다.

내년 1976년을 우리 교구에서는 「**봉사하는 하느님의 백성이 되자**」는 해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봉사는 반드시 사랑이 앞서야 하겠으니, 보다 나은 내일의 봉사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굳게 결속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룩합시다.

끝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강생하신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를 빕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게, 의(義)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들, 육에 갇힌 모든이들에게, 그밖에 불우하고 외로운 모든이들에게 이 밤에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충만히 내리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성탄 메시지□



# 고통으로부터 인간해방(人間解放) 폭력적 투쟁은 용인(容認)못해

—교황 바오로 6세

교황 바오로 6세는 18일 전세계 기독교도들에게 기아와 질병, 문맹, 빈곤, 국제 관계 및 무역의 불공평, 문화 경제적 신 식민주의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해방의 투사가 되라고 촉구했으나 해방 투쟁의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했다.

바오로 6세는 이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발표한 「천대세계의 복음화」라는 1만3천 단어의 권고문(勸告文)을 통해 “복음화와 인도적 필요, 개발과 해방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교회가 인간을 여러가지 고통에서 해방시킬 책임이 있다고 해방의 신학(解放神學)을 역설했다.

교황은 북 아일랜드와 레바논, 필리핀, 중남미 등지에서 기독교들이 폭력대립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무력 등 폭력과 무차별 살해를 해방의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더욱 잔인한 탄압과 노예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교회는 폭력을 용인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 정의(正義)를 거스리는 것은 곧 사랑을 거스리는 것

—김수환 추기경 (서울)

성탄이 가져 온 기쁜 소식은 사랑과 평화이며 구원과 생경임을 강조한 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근본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불의(不義)의 희생자이던 불행한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을 실천했으나 안했느냐에 따라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의(正義)를 거스리는 것은 바로 사랑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정의로움은 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은 곧 사랑에 가득찬 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정의의 나라 더 할 나위 없이 값진 자유, 겪을 줄 모르는 사랑, 보편적인 화해, 영원한 평화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온누리에 참된 평화가 충만해 지기를 기원합니다.

## 내적 쇄신(內的刷新)을 통해 사랑을 생활화(生活化) 해야

—장병화 주교 (마산)

자아(自我)마저 상실한 이마당에 하느님을 다시 모시고 내적인 쇄신을 일으켜 방황의 생활에 중지부를 찍어 하느님이 완전 무결한 사랑으로 삼위일체가 되듯이 우리는 강생의 사랑안에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 자체이신 그리스도는 내가 당신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하시며 (요한 13장 34절) 최후심판의 결정도 이웃에 관한 사랑의 실천(마태오 25장 31-40절) 여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본 주교도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자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강조해온 만큼 새로운 각오로 신앙의 생활화에 진력하시기 바랍니다.

## 회개(悔改)하고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이웃과 사랑을 나누어야

—나길모 주교 (인천)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가 하느님 안에서 일치하여 평화를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 사랑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죄로부터 본래의 선으로 되돌아와 그들의 마음을 참된 회개로써 하느님께 돌려드리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결합한다는 것은 고행과 극기를 요하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을 버리고, 우리 가족과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생활을 하여야 하며, 우리의 마음을 자주 그리스도께 향해야 합니다.

# 요십이 (127) 김병오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마음 착한 이에게 평화  
— 1975년 성탄절

천주교 전주 교구장  
김재덕 주교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 일동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회장 조성호  
윤정이 편집실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 입금님 찾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② 5 0 1 3  
김 원 준(야고버)

## 1976년 1월의 행사들

\* 1월은 나병으로 고통받는 형제들을 돕는 달입니다. \*

1. **평화의 날** 신년 교례회: 1일 11시, 가톨릭 센터  
주교님을 모시고 모든 형제들이 평화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이자리에 참가 초대합니다. 회비는 없습니다
2. **사제양성 후원회 창립 총회**: 1일 12시, 가톨릭 센터
3. **직장인을 위한 공동체 묵상회**: 1일 오후 2시-4일, 가톨릭 센터, 회비 3천원
4. **제9차 남성 푸르실로**: 1일 오후 5시-4일, 가톨릭 센터, 회비 4천원 (전주교우 5천원)
5. 매월 5일은 교구비를 분납하는 날입니다.
6. **중 고등 학생회 임원 수련회**: 5-6일 가톨릭 센터
7. **참사회**: 6일
8. **사목교서 연구를 위한 신부·수녀 연수회**: 7-8일, 가톨릭 센터
9. **성심·해성학교 졸업식**: 9일
10. **가톨릭 농민 전북 연합회**: 9-10일, 가톨릭 센터
11. **성심·해성 교직원 연수회**: 10일 9시-11일 오후 2시, 가톨릭 센터
12. **J.O.C 지도투사모임**: 11일
13. **본당 주일학교 교리교사 연수회**: 12-15일, 가톨릭 센터
14. **가톨릭 농민회 전국회의**: 15-18일, 가톨릭 센터
15. **공소 순회 교육**: 17-18일, 부안 등룡리 공소와 진안 한들공소
16. **J.O.C 투사 및 선배투사, 예비투사 지도자 훈련**: 16-18일
17. **일치 기도회**: 19일, 가톨릭 센터
18. **순교자 현양회 준비회의**: 23일, 가톨릭 센터
19. **사목교서 연구를 위한 평신도 연수회**: 24-25일, 가톨릭 센터  
 ① 사도회 회장단과 선교, 전례, 재경, 봉사 위원장    ② 교구산하 제 기관의 임원  
 ③ 교구 단위 신심단체의 임원
20. **공소 순회 교육**: 24-25일, 고산 수청리 공소와 함열 석동 공소
21. **대학생 공동체 묵상회**: 26-28일, 가톨릭 센터
22. **사목협의회**: 27일, 가톨릭 센터



### ○ 사제양성 후원회 창립 총회 ○

그간 여러분의 정성어린 후원으로 1천만원이 넘는 기금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고자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과 뜻 있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신년 교례회를 겸해서 꼭 나와 주세요. 이 사업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주교님의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기쁨을 마련해 주시느라고 애쓰셨던 前 성소 지도 안복진 신부님과 現 성소 지도 범석규 신부님의 감사와 협조의 인사도 덧붙입니다.

### □ 그리스도 공동체 묵상회 □

신청 연휴를 보람되게 보내시라고 직장인 교형 자매를 초대합니다.

특히 대학생들은 26-28일에 있을 묵상회에 꼭 나오세요. 임원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2월 22-24일에도 묵상회가 또 있습니다.

### \* 푸르실로 \*

크리스찬 지도자를 위한 단기교육이 푸르실로입니다.

신청 연휴를 선용하시어 당신의 신앙생활에 활력소를 공급하십시오. 여성을 위해서는 2월 25-28일에 푸르실로를 열 예정입니다. 푸르실리스타가 되기를 원하시면 본당 신부님께 상의하십시오.

푸르실리스타들의 빨랑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 사목교서 연수회 □

1976년은 "봉사하는 하느님 백성이 되자"라는 주제로 한해를 살아가자고 주교님의 신년 사목교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정신을 배우고 익혀 참된 크리스찬이 되자고 신부수녀·평신도들을 위한 연수회가 열립니다.

공소회장님들을 위해서는 2월 6-7일에 연수회를 할 예정입니다.

### □ 주일학교 교리교사 연수회 □

내일의 주인, 주일학교 아동들의 교리교육을 위해 애쓰는 교리교사를 위한 연수회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공소 공리교사들을 위해서는 2월 16-19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 □ 농 민 회 □

우리나라의 농촌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심각합니다. 250여개의 공소의 대부분이 농촌일 뿐 더러 많은 본당도 농촌에 있습니다.

농민회의 발전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 주십시오.

### □ 공소 순회 교육 □

농한기를 이용한 공소 순회교육을 위해서 성심학교와 해성학교의 신자교사들이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1차로 4개 공소만 선정했습니다.

앞으로도 힘 닿는 대로 댈 것입니다.

박수 아끼지 맙시다.

### □ 고마운 서독 간호원들 □

지난번에는 박근자양이 익산농장 나환자촌 공소 전립에 썬 달라고 350마르크 (약 70,000원)을 보내서 우리를 감격케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나양순양이 264달러95센트(127,674원)을 보내 주었습니다.

76년 1월은 특히 나병으로 고통받는 형제들을 돕는 달로 교구에서는 정했습니다.

성탄절의 기쁨을 그들과 함께 나누십시오.